

중국 태양광 산업 최근 동향

(14. 5.)

상해사무소

1 최근 중국의 태양전지 산업 동향

- 중국 태양광 산업은 태양전지의 주요 수출처인 유럽의 덤핑판정에 따른 수출감소, 세계 경기둔화 등에 따른 수요 감소 문제로 어려움을 겪음
 - '11. 8월 이후 연속 25개월 동안 수출 감소
- 최근, 중국의 태양전지 산업은 최근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
 - 수출 다각화, 덤핑문제 해결 등으로 수출은 '13. 9월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. '13년의 경우 태양전지 수출액은 101.5억 달러로 전년 대비 20.5% 감소하였지만, '12년 23.4% 감소한 것에 비해서는 감소폭이 축소되는 등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

2 업황회복 주요 원인

- (수요 다변화 및 증가) 일본 원전사건 이후 일본의 태양광 투자가 증가하여 '13년의 경우 발전용량이 6GW에 이룸. 또한, 아세안 국가, 인도, 남미 등 신흥시장의 태양광 발전용량은 '12년 2.2GW에서 '13년 5.4GW로 크게 증가 하는 등 과거 미국, 유럽시장에 의존하던 수요처가 다양화 되어 중국 태양전지 업계의 회복에 많은 도움
 - '13년 중국의 대일본 태양전지 수출액은 2.1배 증가하였으며, 일본은 이미 미국을 제치고 중국의 제2의 태양전지 수출국으로 부상
 - 아세안국가는 전년대비 89.2%, 인도는 1.6배, 남미는 11배 수출액 증가
- (중국기업의 사업 다각화 시도) 과거 단순히 태양전지를 생산하여 수출하던 중국기업들은 청정에너지 개발 기업으로 사업모델을 다각화
 - 일례로, ASTRONERGY(浙江正泰太陽能)는 이미 미국, 유럽, 남미, 태국 등에서 총규모 250MW의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. 현재는 총

100MW에 이르는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중으로, ASTRONERGY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50%를 자체개발 프로젝트에 납품

□ (중국정부의 지원) 중국정부는 태양광 산업 지원을 위해 ① 유럽의 덤핑 제제 문제 해결을 통한 수출 지속 ② 태양광 관련 내수부양 정책을 통해 과잉설비 문제 해결·산업 구조조정 등의 조치를 실시

○ 수출관련 조치 : 중국정부 주도하에 중국과 EU는 태양광 패널 반 덤핑 관세 부과와 관련하여 중국기업들과 EU는 최저판매가격 및 수출쿼터(연 7GW) 부과에 합의

- 중국정부는 향후 121개 태양광기업으로 하여금 태양광 패널 합의 결과에 따르도록 할 예정이며, 이들 기업의 물량은 유럽수출액의 약 80%를 담당

- '13. 8월 중국-유럽의 태양광 패널 무역분쟁 합의 이후, 9월부터 중국의 대유럽 태양전지 수출은 다시 증가

○ 내수관련 조치 : 중국정부는 태양광 산업의 불황 타개를 위하여 '13. 7월 관련 정책*을 발표. 정책의 중점은 중국 국내기업들이 국내시장의 확대를 통해 과잉생산 등을 소화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제시장에서 입지를 구축하는 것이 주된 방향

* “국무원의 태양광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관한 약간의 의견(國務院關於促進光伏產業健康發展的若干意見)”

- 태양광 관련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, 저급제품 및 기술이 낙후된 생산기업들을 도태시키고, 높은 기술개발 능력과 시장경쟁력을 보유한 우수기업 양성을 도모

- 또한, '15년까지 태양광 발전용량 목표치를 기존의 21GW에서 35GW로 상향. 이는 '13~15년간 태양광 발전용량을 연평균 10GW씩 증가시켜야 달성할 수 있는 목표

- 태양광 관련한 전기가격, 보조금, 프로젝트 관리, 전력망 접속, 금융 지원 등 유관부분의 지원 정책도 계속 발표*

* 발전차액지원제도(FIT) 보조금 상향, 보조금 재원 확충을 위한 부과금 인상 등

- 중국정부의 태양광 관련 내수 확대 정책에 따라 중국기업의 투자도 늘고 있으며, Yingli(英利)의 하이난 공장은 300MW의 생산규모를 1GW로 확장했으며, JINKO SOLAR(晶科能源)도 1.5GW의 생산규모를 2GW로 확장

3 시사점

- 중국내 태양광 산업 업황은 중국정부의 내수진작 정책, 일본·인도 등 신규시장의 확대 등으로 최악의 상태는 지난 것으로 보이며, 산업 구조조정을 통해 우량기업들의 경쟁력 제고
- 중국은 심각한 스모그 문제 해결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 중국내 태양광 관련 수요는 지속 증가할 전망
- 일부 기업들은 단순 태양전지 생산에서 벗어나 직접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여 자사 제품을 납품하는 등 사업모델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어 해외에서 우리 태양광 기업들과의 경쟁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

[참고] 유관업체가 바라본 최근 중국 태양광 시장(상해사무소 면담 실시)

- '12년에는 태양광 기업들의 가동율이 50~60%에 불과한 등 침체기를 겪음
 - 중국 태양광 기업들의 경우 '12년 이전에는 물량의 80%이상이 유럽과 미국으로 수출하였으나, '13년의 경우 덤핑 판정 등으로 유럽·미국 물량이 30~40%까지 축소
 - 대표적 기업인 선택(Suntech)의 경우 내부관리의 문제가 있었고, 위기시 중국정부에서 지원조건으로 CEO의 재산 담보 등을 요구하였으나 CEO가 거부함에 따라 파산
 - 선택을 제외한 다른 태양광 회사들은 상대적으로 내부관리가 잘 되었고, 불황시 정부의 지원하에 빠른 시일 내에 위기를 극복
- '13년 하반기 중국 국내시장 수요 증가 등에 따라 가동율이 90%까지 상승하는 등 업황이 개선되고 있음. 중국 태양광 업계의 '12~'13년 구조조정을 통해 과잉투자 등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어 향후 업황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

[자료원: 第一財經日報, 상해사무소의 유관업체 면담 등]